

서학개미 “지하실까지 간 美 주식… 반등 기대에 몰타기”

‘관세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폭락 美 빅테크주 공격매수 나서 6일간 엔비디아 7282만 달러 테슬라 2618만 달러 등 순매수

직장인 박모(38)씨는 지난 4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엔비디아를 주당 94달러에 3000만 원어치 사들였다. 지난해 12월 이 주식에 투자해 평균 매입 단가가 주당 130달러 정도였는데, 이날 주가가 급락하자 ‘몰타기(저가에 추가 매수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간 것이다. 박씨는 “지하실까지 간 것 같다. 조금 기다리면 반등할 것이라 생각에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관세전쟁 여파로 아시아 주식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한 7일 미국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했다. 다우 평균은 0.9%, S&P500 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



ChatGPT가 생성한 ‘하락하는 미국 증시에 몰타기하는 투자자’ 모습.

동성 지수(VIX)는 48을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20미만이면 안정적, 30이상이면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부른다. 용감한 결가, 무모한 결가. 최근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자 국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미 빅테크 기업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이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학개미들은 주가 폭락을 보였던 엔비디아(7282만달러), 테슬라(2618만달러), 애플(2083만달러) 등의 기술 기업에 대한 순매수를 유

지했다. 더불어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 컨택터 볼 3X’(2억7086만달러)과 나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는 ‘프로세서즈 울트라’(8027만달러)를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을 단기 수익을 올릴 기회로 삼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계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관세전쟁을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학대받아(long time abused) 온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관세를 통해 매수 수익을 달러들(미국을) 학대하던 나라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느릿느릿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3~4일 뒤틀린 것과 같이 시장에 더 많은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낙폭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랙스완’ 이벤트에 베틀하는 전략으로 유명한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의 마크스피츠나겔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7일(현지시간) “이번 급락 사태는 투자자들을 떨쳐 내기 위한 또 다른 투매일 뿐 세상의 아마겟돈은 아니다”라며 “진짜 폭락장은 거품이 터지면서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통화·재정 정책의 대응 여력을 감안할 때, 최대 피해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현재의 실효 관세율이 3~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확률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민연금, 1분기 주식 평가액 8.2조 증가

한화에어로 등 방산·조선 상승 영향 삼성SDI·현대차 등 일부종목 하락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8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과 조선 업종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보유 주식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 의무가 발생한 상장사는 4일 기준 총 27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136조754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12월 30일 기준) 127조8418억원보다 8조2337억원 증가한 수치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방산주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2941억원 늘었고, 현대로템(4333억원), 한국항공우주(1822억원)도 상승세를 이 끌었다. 조선 업종 중에서는 한화오션



서울에 위치한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내부 모습. /뉴시스

이 5687억원, 삼성중공업이 1631억원 씩 평가액을 끌어올렸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각각 1조3300억원, 4439억원씩 증가했다. 방산과 조선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방위산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훈련기 사업의 타임라인이 앞당겨지고 이집트 FA-50 수주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투기 사업도 순조롭다”며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 K-22차 계약 체결이 시장 기대 대비 늦어지고 있지만 현지 생산 관련 세부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선 발주의 흐름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종목은 오히려 평가액이 감소하기도 했다. 삼성SDI는 3074억원, 현대차 3024억원, 기아 2906억원, LG에너지솔루션 2725억원씩 줄어 들었다. 국민연금의 신규 대량 보유 종목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중 HMM, 포스코DX, 두산로보틱스, 호텔신라,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와이저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올랐다. 반대로 신세계푸드, 한솔제지, 씨앤씨인테리어, 진에어, 명신산업, 삼양홀딩스 등은 지분율은 5% 밑으로 떨어졌다. /신하은 기자

관세공포에 증시 ‘흔들’... 장기적 하락 우려

“추가적 조치 따라 변동성 커질수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334.2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65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에도 수십포인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8조608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리스크가 급격히 반영돼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발인 수위나 추가 조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낮춘 2250선으로 조정했고, 흥국증권 역시 2분기 코스피의 변동 폭을 2200~2700선으로 낮춰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무역 분쟁의 전선이 넓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美배당다우존스 커버드콜’ 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 ETF ‘SCHD’ 투자 3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의 순자산 총합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전날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커버드콜1호’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커버드콜2호’,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데일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은 각각 678억원, 9136억원,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들은 미국의 대표 배당주 ETF ‘SCHD’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은 옵션을 매도한 대가로 얻는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분배금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원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윤병호 미래에셋운용 전략ETF운용 본부장은 “최근 커버드콜 ETF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차익과 인컴수익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ETF’는 앞으로도 꾸준한 자본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ETF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삼성운용, 인도 중소형주 투자 ETF 상장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ETF’

삼성자산운용은 인도 중소형주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8일 밝혔다.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ETF는 인도 증시의 중소형주 대표 지수인 ‘Nifty Midcap 100 Index’를 추종하며, 인도 내수 경제를 주도하는 100개 중소형 성장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특히 인프라(40%)와 소비재(30%) 등 내수 성장의 핵심 섹터에 집중한다. 인도 중소형주의 성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편입 종목은 인도 의료 분야의 강자 기업인 ‘맥스헬스케어(Max Healthcare)’, 인도 전통 호텔 기업인 인디언 호텔(Indian Hotels), 봄베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BSE 등이 포함된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소



비시장 확대, 젊은 노동력, 디지털 인프라 확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구조적 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중소형주는 급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기업군이다. 세계 최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도시화와 내수 시장을 주도하는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재, 금융, 인프라, 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소형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원관희 기자